

# 현재의 번역 성경은 과연 성경 강해나 설교에 적합한가?

에디시오 산체스\*

장성길 번역\*\*

## 1. 서론

성경 강해와 설교를 위한 주석 작업에 적합한 본문(가장 이상적인 본문이란 구약 맞소라 성경 본문이나 신약 그리스어 성경일 것이다)을 갖기 위해서는 원문 번역에 착수하기 전에 그 사전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은 무엇보다 주석 방법론들과 그 장치에 정통해 있어야 하며, 또한 성경 강해나 설교에 적합한 성경 역본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소위 말하는 주류 언어(“majority” languages; 예를 들면, 영어나 스페인어)로 번역된 역본들을 사용하여 주석 작업을 진행하는 주석가들은 별 어려움 없이 주석 작업을 해 나갈 수 있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이러한 번역본들은 대체로 어휘나 문법적 층위에서는 원문에 가깝게 번역이 이루어졌다고 본다. 그러나 그 번역본들을 가능케 했던 번역 원칙들을 들여다보면, 번역되기 전의 원천 언어(source language)와 번역해야 할 대상 언어(target language)들의 언어학적 또는 문학적 특성들을 신중하게 살펴서 번역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번역본들을 도구 삼아 주석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 함정을 안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번역본들이 히브리어나 아람어, 또는 그리스어와 같은 원어에 친숙해지도록 하는 데 물론 도움이 된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아메리카 원주민어나 토착 언어를 사용하는 목회자나 평신도 리더였을 경우라고 가정한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첫째, 대부분의 토착 언어 번역본들은 성경 언어들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번역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번역본은 일차 원본이나 그 언어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성경(a Bible)인 것이다. 비록 그 번역 성경이 원문에 충실한 직역이라 할지라도, 그 문자성(literalness)이나 형식은 다소간 성경 언어 그 자체로부터 넘어온 주류 언어의 문자성과 형식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둘째, 오늘날 모든 세계 성서공회연합회의 토착 언어로의 번역본들은 실제로 문자적 또는 형식적 원리

\* 세계성서공회연합회 아메리카 지역 번역 컨설턴트

\*\*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강사, 구약학

들을 따르지 않고, 역동적 동등성 또는 기능 동등성(소위 말하는 의미에 기초한 번역)의 원리를 따라 번역된 것이다. 이러한 스타일의 번역본들이 지니는 문제점들은 바로 이것이다. 소위 말하는 형식 동등성의 번역본에서 나타나는 문자성(literalness)을 해결했다고 말하지만 설교나 강의에 적합한 본문으로써 선택하기에는 큰 걸림돌이 된다. 그 실례가 스페인어 번역본 *Dios Habla Hoy*에 나타나 있고, 영역본에서도 마찬가지로 *Today's English Version (TEV)*에서 똑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몇몇의 경우에 있어서는, 번역자들이 본문 상에 나타나는 주요 담론 지시어들에 거의 또는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거나, 중요 단어들을 첨가 또는 생략하여 본래의 문장 구조를 파괴하기도 한다. 아래의 예들은 필자가 지적한 점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2. 담화 구조의 단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 2.1. 신명기 1:9-18

본 단락을 주제적 층위와 문법적 층위 어느 면에서 보더라도 하나의 담론 단위로 명확하게 구분된다. 그 구조는 히브리어 원문에 3회(9, 16, 18절) 나타나는 **그 때에**(바에트 하후)라는 시간 부사구에 의해 표시되고 있다. 스페인어 번역본 가운데 *Reina-Valera 1960 (RV60)*와 *Dios Habla Hoy (DHH)*는 시작점과 종결부에 그 구절을 두어 독자들로 시간 부사구가 문단 골조를 형성한다고 결론 내릴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단서를 제공한다. RV60은 9절과 18절에서 ‘**바에트 하후**’라는 구절을 **그래서**(En aquel tiempo)로 번역하였고, DHH는 **그 때에**(En aquella [misma] ocasión)라고 적고 있다.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에는 실제로 그 인용구가 한번 더 나타난다. RV60과 DHH 모두 두 번째 인용구를 번역하지 않고 있다는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한다. RV60은 “**그 때**”(entonces)로 대신하고 있고, DHH는 **동시에**(al mismo tiempo)라는 부사로 대치한다. 그렇다면 왜 두 번역본이 9절과 18절에서 번역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대로 두 번째 인용구를 번역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RV60의 경우에는 단락별로 문단을 나누고 있지 않기 때문에 16절의 경우에는 본문 상에서 단락을 구분 짓는 결정적 역할을 하지 못했고 따라서 그것을 명확하게 표시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반면에 DHH의 경우에는 새로운 문단이 시작 될 때 단락별로 분명하게 구분 짓는다. 하지만 주제적 층위에서 볼 때, 16절에서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 9절과 18절에서 새로운 문단이 시작되는 것으로 표

기한 것이다.

여기서 필자가 고민하는 문제는 성경 번역에 있어서 **답론 구조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우리가 본문에 구조를 부여하는 것인가? 아니면 본문으로부터 구조가 도출되어 나오는 것인가? 혹자는 DHH와 같은 역본은 설교자나 주석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평신도를 위한 것이며, 수용 언어(the receptor language)와 동등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은 매우 역동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것이다. 마치 이것은 우리가 번역가들에게 DHH를 하나의 모델로 그리고 번역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라는 것과 같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번역은 원문과는 동떨어진 번역이 되고 마는 것이다. 게다가 그 번역은 번역자들로부터 그들이 동등하게 번역해야만 하는 진짜 원문(the real base text)을 숨기고 만다. 아울러 번역자들에게 비교 분석을 위해 RV60을 사용하라고 권하는 것도 또한 적절하지 못하다. 그 이유는 RVR은 본문의 답론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신명기 1:9-18의 경우 9절과 18절에 적용하였던 방식을 두 번째 인용문에서는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았다.

히브리어 원문은 모세가 백성들과 그 수령들에게 말이나 명령을 선포하는 대목에서는 특별한 지시어를 새겨 둔다. 각각의 새로운 문단은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화자나 등장인물이 바뀐다고 해서 문단을 구분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모세가 말을 선포할 때, 문단이 나눌 수 있다. VP의 경우, 단락 구분은 주제가 바뀌거나 화자(또는 등장인물)이 바뀔 때에 새로운 단락을 시작하는 현대적 관행을 따르고 있다고 이해된다. 그러나 단락은 이런 저런 방식으로 다양하게 답론 구조를 표시할 수 있다. 한 예로, 14절은 직접화법으로 인용된 모세의 말이다. 그렇다고 해서 14절과 15절에 새로운 단락 구분을 할 필요가 없다. 몇몇 영어와 스페인어로 번역된 현대어 역본들을 조사해 본 결과, 신명기 1:9-18의 단락 구분에 있어서 통일된 기준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NRSV 영역본의 경우 단 하나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9절과 16절 그리고 18절의 시간 부사구를 ‘그때에’로 동일하게 번역하고 있다. 스페인어 역본본의 *La Biblia de Jerusalén*의 경우에 이와 동일하다. 한편 스페인어 역본 TEV는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누고 있는데, 16절에서 두 번째 단락이 시작된다. 그러나 시간 부사구는 약간씩 다르게 번역되어 있다: ‘우리가 …하였을 동안’(9절), ‘그때에’(16절), ‘그래도’(18절). 한편, VP 역본의 경우는 4개의 단락으로 나누고 있다. 둘째 단락은 14절에서 시작하고, 셋째 단락은 15절, 그리고 넷째 단락은 18절에서 시작한다. 시간 부사 번역에 있어서 나의 제안은 이것이다.

그래서… ‘Thereupon’(9절)

그 때에... 'At that time'(16절)

그 때에... 'At that time'(18절)

## 2.2. 신명기 9:9-10:11

위에서 살펴본 담론 구조에서와 같이, 본 단락에서도 새로운 문단이 시작되는 대목에서는 일련의 형식적 문구(formula)를 반복함으로 그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현대어 번역본들(DHH, *New English Bible*, TEV and NRSV)은 단락 구분이나 담론 단위를 정할 때에 담론 지시어들을 고려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역본들을 살펴보면 왜 특별한 담론 단위가 이러한 방식 또는 저런 방식으로 나뉘어야 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일관된 기준을 발견할 수 없었다. 주제적 기준 역시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 기초가 쉽게 흔들릴 수 있어 너무도 탄력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필자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히브리어 본문의 문체적 표지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며, 아울러 저자가 전달하려는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주제 단위로 본문을 나누는 것도 물론 중요한 작업이라는 주장이다.

신명기 9:9-10:11에서 저자는 '사십 주야'(9:9, 11, 18, 25; 10:10)라는 형식적 문구(formula)를 사용하여 단락 구분을 표시하고 있다. 서로 다른 다섯 개의 작은 단락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간의 중재자로 역할을 하였던 모세의 특별한 사역에 집중하고 있다. 첫 단락은 모세가 처음 여호와께로부터 언약의 돌판들을 받았을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부분이다. 두 번째 단락은 백성들의 우상숭배와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심, 그리고 모세가 두 돌판을 깨뜨리는 일련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단락은 모세가 백성들을 대표하여 중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 번째 단락은 모세의 중재자로서의 기도와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반하여 네 번째 단락은 특별히 여호와의 위엄을 강조하며 새로운 돌판에 십계명을 기록하는 기사를 함께 전하고 있다. 다섯 번째 단락은 이전 단락을 요약하는 내용과 함께 계속 전진하여 약속의 땅을 얻으라는 명령이 주어져 있다. 따라서 담론 단위의 구분은 특별한 형식적 문구(formula)를 반복함으로 표시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단이 시작됨을 알리는 것이다.

## 2.3. 시편 100편

히브리어 시편의 구조와 구성이 성경 번역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라는 사실에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만일 번역함에 있어서 의미가 가장

중요한 주제였다면 이러한 문제는 관심 밖의 일이 되고 말 것이다.

우리는 번역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기능 동등성 또는 역동적 동등성을 찾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라고 배워 왔다. 그러나 시를 번역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자의 결론은 대부분의 현대 번역본들이, 비록 전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형식적 또는 문자적 번역에 견줄 만한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실은 평행법에 있어서도 그렇고 담론 구조에서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몇 년 전에, 스페인어 번역본 가운데 VPPE(VP의 연구편)의 시편 부분의 각주 작업을 진행하였을 때의 일이다. 나는 그 때 VP 역본이 시편 100편을 번역함에 있어서 시편에 나타난 명령형 동사들이 시문의 구조와 시 전체의 메시지를 살리는 중심 요소라는 사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문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번역이라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시편 100편의 심오한 메시지는 7개의 명령형 동사들이 단락 속에 위치하는 방식에 따라 좌우된다. 명령형 동사들이 간결한 동심 구조를 이루어, 중앙의 핵심부로 메시지를 집중시키는 역할을 한다.

시편 100편을 읽는 사람은 누구나, 그 표상에 잘 드러나 있듯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하라는 핵심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 시를 노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소한 4개의 명령형 동사들과 7개의 명사들이 그 의미를 노래하고 경배한다. 각각의 등장인물들이 나타내는 방식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며 또한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격하여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분임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다른 한편 전체 단락 구조를 세밀히 관찰했을 때, 여호와께 경배하며 찬양하라는 메시지에 주된 포커스가 있음을 파악하게 된다.

첫째, 명령형 동사들은 예배의 영역 내에서 인간들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하여 무언가를 말씀하고 있다. 예배는 순종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그 무엇이다. 그것은 개인적인 욕망에 기인한 초청이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명령되어진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들어왔을 때, 순종의 종이라 고백한다. 번역은 곧 이러한 의미를 전달해 줄 필요가 있다.

둘째, 명령형 동사들이 일곱 번 나타난다. 시편 100편에 따르면, 예배는 여기 7개의 동사들이 의미하는 모든 요소들을 포괄하고 있다는 말이다. 즉, 완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느 것 하나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번역은 예배의 전체성과 완전성의 의미를 드러내 줄 수 있어야 한다.

셋째, 100편의 동심원 구조는 아래와 같이 바깥쪽에 세 겹으로 겹쳐 있는 개념(ideas)들과 중앙에 자리한 하나의 핵심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와 일곱 번째 명령형 동사들과 두 번째와 여섯 번째 명령형 동사들은 히브리어 성경의 예배와 관련된 어휘군(하리우(1절), 바레쿠(4절), 이브두(2절), 호두(4절))에 속한

다. 그리고 세 번째와 다섯 번째는 ‘들어가다’라는 의미를 지닌 ‘보우’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2절과 4절에 나타나며, 네 번째이자 중심부는 ‘데우’(알다)라는 동사를 쓰고 있다.

- A 환호성을 올리라
- B 섬기라
- C 들어가라
- D 알라
- C 들어가라
- B 감사를 드리라
- A 송축하라

이 구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참된 예배에 속한 모든 것들은 그 중심에 **참 하나님의 지식(the knowledge of the true God)**을 담고 있다는 말이다. 시편 100편에 있어서 예배란 여호와와의 유일성과 단일성을 주장함이다. 이것은 성경적 믿음, 즉 쉘마(신 6:4-5)의 중심 메시지를 강조하는 것이다.

명령형 동사 ‘알라’(3절)와 이어지는 불변사 키(כִּי)는 뒤따르는 명령형 동사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동시에 왜 다른 신이 아니라 여호와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설명한다: **여호와는 하나님,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기 때문이다. 비록 7개의 명령형 동사들과는 떨어져 있으나, 예배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메시지의 중심에 두고 있다. 마지막 5절 역시 (3절의 ‘키’를 반영하는) 불변사 키(כִּי)에 의해 중심 메시지로 부각된다.

그리고 시편 100편에 따르면 예배는 우상을 파괴하는 힘이며, 또한 주를 향한 끊을 수 없는 충절을 진술하는 것이다.

히브리 시의 형식을 고수하는 직역 번역은 최소한 독자나(또는 청중들에게), 동적인 등가 법칙을 따르는 많은 현대어 번역본보다는 히브리 시의 구조를 맞출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한다. 그러나 RL역본의 경우에는 생생한 시의 품미나 힘을 표현하지 못했다.

시편 100편과 같은 시를 충실하게 번역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것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는 내용면에 있어서나 문단 형식에 있어서 시의 문체적 특성(RL 역본에 특유하게 나타나는데)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물론 가장 어려운 작업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에서 이 작업이 불가능하다면, 바른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한 예로, 동심원 구조와 같은 경우, 본문 옆

에 각주(footnote) 형식으로 처리하여 시편의 구조를 보여줄 수 있다.

번역자는 독자나 청중들에게 주어진 단락의 메시지 전체를 전달하기 위하여 힘써야 하며, 적어도 그들이(또는 그녀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그 의미를 찾는 데 방해하지는 말아야 한다. 필자가 생각하기로는 번역이 어떠한 청중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명확하게 번역해 낼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 3. 담론 단위에 있어서 스타일의 변화들

#### 3.1. 신명기 2:1-8

본문과 관련하여 필자는 VP 역본이나 또 다른 번역본들이 어떻게 담론 구조를 나누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에 관심있는 것이 아니고, 담론 구조 내에서 담론의 변화를 표시하는 구문론적 변화들(syntax changes)을 고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자 함이다. 비록 성경 번역본들이 본문 문단을 나누는 데 있어서 통일된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필자는 2:1-8을 하나의 담론 단위로 볼 수 있는 이유들을 발견했다. 1-2절과 8절이 수미상관 구조(*inclusio*)를 형성하는 하나의 틀 또는 동심원 구조를 나타낸다는 주장이다.

1-2절과 8절은 다음의 두 가지 내용을 공유한다. (1) 서로 유사한 구문을 갖고 있다. “우리가 광야 길로 여행한 후...”(1절), “...우리가 광야 길로 비켜 지나왔다”(8절); (2)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동의 주체가 된 스토리 단락들로 이루어져 있다. 한편, 중심 단락을 형성하는 3-7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일련의 명령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부분은 권고 담론(*hortatory discourse*)의 특성을 나타낸다.

독자들에게 본문 내의 담론 양식의 변화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히브리 본문은 그 나름의 방식을 가지고 있다. 아래의 문법적 그리고 구문론적 변화가 바로 그것이다:

1. 1-2절과 8절에서 동작(action) 동사들은 바브 연계형(와네펜, 와니쉬판, 와나사브, 와나<sup>에</sup>보르, 와네펜, 와나<sup>에</sup>보르)으로 기록되었고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 ‘우리는 돌아 들어갔다’, ‘우리는 우리의 길로 두루 다녔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우리는 지나갔다’, ‘우리는 떠났다’, ‘여행하였다.’ 여기서 쓰인 동사들의 어순(word order)는 히브리어 이야기 체의 기본 어순인 VSO(동사-주어-목적어 순)이다.

2. 반대로 3-7절에서의 동사들은 변화무쌍하다: 완료, 명령형, 분사형, 미

완료형, 그리고 바브 연속법으로 변한다. 그렇다면 3-7절의 어순 변화에 있어서 특이한 점은 무엇인가? 1,2, 그리고 8절에서는 모든 주절들이 바브-연계형(즉, 바브-미완료)으로 시작하였다. 그러나 3-7절에서 주절은 부사(3절), 직접 목적어(4절), 부정 부사(5절), 명사(6절), 그리고 접속사(7절)로 연결되어 나타난다.

번역자들이 이와 같은 히브리어 스타일의 특성들을 숙지하고 있어야만 주어진 텍스트를 자신들의 모국어로 충실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번역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신명기 2:1-8절의 경우에, 텍스트 내에서 담론 특성의 변화들을 표시하는 방식은 문법적이라기보다는 다분히 형식적인 구성(external format)에 의해 파악된다. 본 단락은 여호와와의 말씀을 직접 인용한 3-7절을 삽입되어 들어온 하나의 독립적 단위로 분리하여 전체적으로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 산을 두루 다녔다. 그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라.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밭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 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십 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엘랏과 에시온게벨에서 시작되는 아라바 길을 따라 세일에 사는 우리의 친족인 에서의 자손이 사는 곳을 비켜 지나왔다.

## 4. 단어 하나가 완전히 다른 의미를 만들 때

### 4.1. 신명기 6:4-9

필자는 기독교 교육과 어린이 사역에 대한 관심 때문에 오랫동안 이 본문에 친숙해 있었고, 성경 공부와 설교를 통해서 자주 이 본문을 다루어 왔다. 그렇지만



나는 번역의 통찰력으로 이 본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교사로 그리고 목사로서 이 본문을 다루는 것이다.

물론 몇몇 단어들의 경우에는 번역상에 난제가 있다. 특별히 히브리어의 **דָּלָת**의 경우에 ‘하나’로 번역할 것인가 아니면 ‘오직’으로 번역할 것인가와 같은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여기서 필자의 관심은 본 단락의 마지막 단어인 **דְּלָתוֹתֵיכֶם**(너희 문에도)에 있다. 이 단어는 맛소라 본문에서 집 문으로는 한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

모든 스페인어 역본들은 나에게 다 유효하다. 그런데 DHH와 *Libro del Pueblo de Dios* [LPD] 두 역본의 경우 이 단어를 ‘문들’(puertas) 또는 ‘너희 집들의 문들’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이 단어는 ‘문들’ 또는 ‘시 출입문’으로 번역해야 한다고 본다.

여기서 우리는 이 단어의 원래의 뜻(original meaning)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를 갖게 된다. VP와 RVR 역본들은 스페인 독자들에게 “이 말들을 기록하라는 45 절의 명령은 문설주(doorposts)와 이스라엘 집들의 문들에서 명령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이 진실이 아니다. 그래서 주석적인 그리고 신학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만약 성경 학부의 학생이 앞서 언급한 두 번역본 가운데 하나를 가지고, 이 본문을 강의하거나 설교할 때, ‘부모의 교육적 책임은 그들의 집 문에 까지 간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다. 필자가 묻고 싶은 질문은, 이 본문에 따르면, 부모가 자기 자녀들에 대한 교육적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그 대답은 항상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 있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저자(곧 하나님의 말씀)가 의도하는 바가 아니다. 부모의 교육적 책임은 자기가 사는 동네나 도시의 한계를 극복하여 펼쳐지는 것이다. 현재 문맥에서 본다면, 나는 본문의 의미가 당신의 자녀들이 매일 매일 활동하는 그 영역에까지라고 말할 것이다.

이러한 식으로, 단 하나의 단어로도 어떠한 번역본이 본문의 본래의 의미를 왜곡시킬 수 있으며, 독자들에게서 원문으로부터 전해진 의미를 빼앗는 누를 범하게 된다.

#### 4.2. 신명기 5:6-21

본 단락의 연구는 같은 쌍을 이루는 출애굽기 20:2-17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더욱 그 가치가 증대되었다. 두 본문 간의 비교는 성경 학자들이 두 담론 단위들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 글에서 필자는 특별히 신명기 본문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 본문의 문학적 구조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해준 학자는 독일의 구약학자인 노

버트 로핑크이다. 로핑크는 십계명의 신명기적 버전에서의 안식일 계명에 주된 관심을 보여 왔다. 신명기의 편집자는 십계명을 3개의 긴 단위와 2개의 짧은 단위로 구분한다.

1. (긴 단위) 하나님께 경배 (vv. 7-10)
2. (짧은 단위) 하나님의 이름 (v. 11)
3. (긴 단위) 안식일 (vv. 12-15)
4. (짧은 단위) 부모들 (v. 16)
5. (긴 단위) 윤리 (vv. 17-21)

신명기의 편집자는 그것의 원 본문 위에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는데, 특별히 안식일 계명을 중심부로 가져온다.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언급하게 되는데, 하나는 십계명의 시작점(출애굽의 선포[6절로 15절까지])에서, 다른 하나는 종결부(소와 나귀에 관한 인용[11절로 14절까지])에 나타난다. 그는 창조적 관점(출애굽기 20장)에서 사회적 관점(신명기 5장)으로 안식일 계명의 관점을 수정하고 있다. 한편, 신명기 5장의 십계명의 종결부의 마지막 다섯 계명을 히브리어의 접속사 **베**(‘그리고’)를 사용하여 구문론적으로 결합시켜 하나의 긴 단위를 만들어 낸다. 첫 두 계명은 신명기 편집자(Deuteronomic editor)가 십계명 본문을 받았을 때 이미 결합되어 있었다.

놀라는 점은 단지 소수의 현대어 번역본들만이 출애굽기와 신명기 간의 이러한 중요한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필자는 스페인어 역본들에 익숙해 있는데, *Traducción en Lenguaje Actual* [TLA] 번역 성경은 이 사실을 고려하고 있다. 다른 역본들의 경우에, 본문의 문법이나 그 형식이 독자나 성경 연구자들로 하여금 원문에서 의도된 본문의 심오한 메시지에 도달하도록 도움을 주지 못한다.

DHH와 RV60의 경우, 18절부터 21절까지 십계명 조항 속에 접속사를 넣지 않고 있다. 그리고 담론 단락을 구분 지을 때, 절들(paragraphs)이 원문에서 의도된 단락 구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TLA와 Nueva Biblia Española(NBE) 번역 성경은 17-21절에서 원문의 접속사 **베**를 고려하여 번역하였다.

누군가가 번역을 할 때에, 이러한 단어의 변화들을 놓쳤을 경우, 담론 단락의 메시지는 왜곡되고 그 의미를 놓치게 된다. 신명기의 십계명 저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심 계명은 안식일 법이다(출애굽기는 첫 계명에 강조점이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이 신명기 5장의 신학은 출애굽기 20장과는 실제로 다르다. 신명기 5장 담론의 역동성은 다른 모든 계명들을 중심으로 끌어들이고 있는데, 그 중심부가 바로 저자가 독자들을 이끌어가는 그 곳이다. 출애굽기 20

장의 신학적 강조점이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충절이라는 데 반하여 신명기 5장의 강조점은 정의(justice)에 놓여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안식일을 명령하신 것이다.

필자는 신명기 5:6-21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자고 제안한다.

<sup>6</sup>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들이 종들로 있었던 이집트에서 너희들을 빼내었다. <sup>7</sup>나 외에 다른 신들을 가지지 말아라. <sup>8</sup>하늘이나 땅에서나 깊은 바다에 있는 어떤 것의 우상들이나 형상들을 만들지 말라. <sup>9</sup>그들 앞에 무릎 꿇거나, 그의 영광을 위해 예배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며,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아들들과 손자들과 증손자들을 별한다. <sup>10</sup>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의 모든 자손들에게는 선으로 대우한다.

<sup>11</sup>나의 이름을 불경하게 사용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너희를 벌할 것이다.

<sup>12</sup>안식일이 나에게 바쳐진 특별한 날인 것을 기억하라. <sup>13</sup>일주일의 첫 여섯 날들 동안에 원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sup>14</sup>그러나 안식일은 나에게 바쳐진 쉬는 날이 될 것이다. 그 날은 너희들이나, 너희의 아들들이나, 너희의 딸들이나, 너희의 남종들이나, 너희의 여종들이나, 너희의 소나, 너희의 당나귀나, 너희의 어떤 동물들이나, 너희들을 위하여 일하는 이방인들이나, 그 누구든지 어떤 종류의 일을 하지 못할 것이다. <sup>15</sup>그러므로 너희들 역시 이집트에서 종들이었으며, 내가 나의 큰 능력을 사용하여 너희들을 그곳에서 빼어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제 칠일 날을 쉬는 날로 삼을 것을 명령한다.

<sup>16</sup>너희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순종하고 보살피라. 그러면 잘 될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나라에서 많은 해를 살 수 있을 것이다.

<sup>17</sup>살인하지 말라. <sup>18</sup>너희의 결혼생활에서 배반하지 말라. <sup>19</sup>도둑질하지 말라. <sup>20</sup>다른 사람을 나쁘게 말하지 말고, 그에 대하여 거짓말들을 말하지 말라. <sup>21</sup>다른 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의 부인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당나귀나, 어떤 그들의 소유들이든지, 가지고자 하는 소원이 너희를 지배하게 하지 말라.

## 5. 단지 정보가 아니라 의미를 해석하기

### 5.1. 뜻기

이름을 번역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 그리고 번역 작업에 있어서 주어진 이름의 의미가 본문의 전체 의미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필

수적인 것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기서 답론 전체를 조망하는 언어적 그리고 문학적 분석을 시도해 본다.

필자가 아는 대로, 스페인 역본들 가운데 룻기에 나타나는 이름들을 번역하고 있는 번역서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번역자들이 본문에서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전체 본문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핵심 요소라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았거나 알지 못했던 것임을 말해주는 증거이다. 다양한 이름들의 그 의미가 중요한 만큼, 왜 룻기의 스토리 배경이 사사기 시대인지 그리고 나오미의 가족이 왜 모압 땅에서의 삶을 정리하였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정보이다.

학생들이 단락 전체의 메시지에 기초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조력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번역을 해내기 위해서, 번역가들은 교사들과 목사에게 요구되는 동일한 작업을 해나가야만 한다. 따라서 번역가들과 목사들은 모두 문학 분석과 수사 비평에 익숙해 있어야 한다.

## 6. 성경을 문학으로 고려한다면

필자가 멕시코에 있는 신학교에서 교수로 사역한 이후로, 박사과정을 준비하고 있을 때부터 앞서 언급한 방식으로 성경을 분석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을 발전시키기 시작했다. 필자는 정말 어디에서 그리고 어떻게 성경 본문의 생각들을 오려내어 그것을 백지 위에 붙인 다음 색깔 펜으로 표시해 나갈지를 알지 못했다. 내가 버지니아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에 갔을 때, 로버트 알터의 접근법과 여타 다른 연구물들(필자는 그 때까지 제임스 물렌버그의 그 유명한 소논문을 알지 못했었다.)이 나의 주석적 작업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 때에 나는 그것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다. 다른 학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필자도 매우 어려운 용어 때문에 본문 속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 구조주의 분석이나 기호학적인 본문 읽기를 감히 염두를 내지 못했었다. 그래도 필자는 본문의 문학적 분석을 계속하였고 아마도 그 이전에 대학에서 훈련한 것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그 주제와 관련한 서적들을 읽었던 것은 사실이나, 필자의 대부분의 작업은 본문과 직접 씨름한 결과이다. 이 작업을 박사 논문을 쓰면서, 세미나를 준비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소논문이나 주석을 쓰면서, 그리고 번역 작업을 위해 본문을 주해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신학생들과 지역 교회 평신도들에게 주해를 가르치면서 계속해 오는 방법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필자는 소위 말하는 수사비평에 더욱 친숙해져야 한다는 필

요를 느낀다. 필자가 놀랐던 사실은, 필자가 해왔던 많은 작업들이 주석적 접근을 통하여 하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이었다. 그래서 필자는 학생들에게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내 자신이 먼저 숙달하기 위해 더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우리 가까이 있는 소위 말하는 쿠반웨이(the Cuban way)의 기회를 가까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지난 20년 동안 성경연구는 본문을 주석함에 있어서 새로운 움직임에 영향을 받았고, 그 영향력을 실감하였다. 그 운동이란 일반문학 용어로 ‘신 문학 비평’을 일컫는다. 그러한 주해 방법들로, ‘형식주의’, ‘구조주의 분석’, ‘본문을 기호학적으로 읽기’, 그리고 ‘수사적 비평’을 살펴보고 있다. 비록 이러한 접근법들이 역사비평적 방법들을 대치하려고 의도한 것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 주석적 방법론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방법론들은 일면 학생들로 하여금 원문(Urtext) 복원을 시도하는, 즉 본문의 표층을 파 들어가 그 저변의 깔린 가장 원시 본문을 찾으려 하는 소위 말하는 ‘고고학적 주석 방법’(archaeological exegesis)에서 자유롭게 해준다. 이처럼 원문(Urtext) 복원을 위하여 쓰이는 도구들로는 “문헌비평, 양식비평, 전승비평 그리고 편집비평”을 들 수 있다.

몇몇 학자들은 그 본래의 역사적 맥락에서 본문의 배경을 찾으려 애쓰는 역사 비평 방법론의 오류를 보여준다.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는 것은 ‘모세오경’이나 신약성경의 첫 부분의 ‘아람어 복음서’에서의 ‘G’ 로 표기되는 ‘자료들’이 아니라 **정경적 본문**이다. 만일 제1세계(즉,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 있는 학자들이 첫 번째 원본(first text)을 찾기 위해서 여전히 씨름한다면, 북대서양 지역과 비교하여 주석적 도구들을 가지고 있지 못한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이미 잘 알려진 수사비평적 주석 작업은 역사 비평에서 말하는 원 본문(the first text)의 매임에서 완전히 해방된다. 역사 비평적 방법론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요소들은 실제 라틴 아메리카의 도시나 시골에서 사역하는 성경 학자들이 접할 수 없는 도구들을 요구한다. 대부분의 이러한 도구들은 북대서양 지역에 잘 꾸며진 도서관에서나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목적은 불필요한 중간 단계를 고집하는 주석가들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벗어나는 것이다. 번역 작업에 있어서, 우리의 **주석 작업은** 존재하지 않는 원문(a “non-existing” first text)의 최종 본을 다룰 수 있는 좀더 탄탄한 토대를 구축할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 필리스 트리블(Phyllis Tribble)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성경 신학자들 내에서 의미의 ‘본문 중심에 둔 초점’은 정밀하게 읽기(close reading)를 추구한다는 면에서 본문비평(textual criticism)과 보조를 같이 한다. 그러나 본문비평이 하나의 본래 원문(Urtext)을 찾지 않는다는 점에

서 구별된다. ‘본문-중심에 둔 초점’은 최종본에 특별한 지위를 준다는 면에서 정경비평과 보조를 같이 한다. 그러나 정경비평 방법론이 예술적 효과를 받아들인다는 점에서는 다르며 또한 역사 비평적 방법론들의 실패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본문-중심에 둔 초점’은 본문을 의미가 통과해 가는 하나의 창으로 보는, 그것이 역사적 재구성이든, 사회학적인 사색이든, 저자의 의도든, 또는 윤리적 그리고 신학적 발취든 간에, 그러한 모든 학문 분야와는 구별된다. 설령 본문이 좋은 창이라 할지라도, 하나의 수사적 접근은 그것을 본래 그림으로써 지각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학문은 그림을 묘사하고 해석함으로써 의미를 명료하게 한다.

## 7. 필자의 방법론

### 7.1. 도구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하여 우리는 성경 번역본들과 그 밖의 역본들을 함께 다루어 보았다. 이에 덧붙여 언급할 것은 성경 용어 색인과 사전 같은 서지학적 도구들이 언제나 유용했다는 사실이다.

수사 분석을 위하여 필자는 작업할 본문을 인쇄하거나 복사하여, 그것을 잘라내고 풀로 붙인 다음 칼라 펜으로 표시해 가며 분석해 나갔다. 이러한 연습은 실제로 설교를 준비하거나, 성경 연구함에 있어서 그리고 논문을 쓰거나 주석 작업을 진행할 때에 매우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7.2. 전문 지식

경험은, 관찰하고 또 수없이 많은 물음들을 던지는 과정에서, 필자를 가르쳤고, 그 경험이 문학적 분석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그 과정에서 필자는 소위 말하는 육하원칙(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어디서?, 언제?)이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첫 번째 두 성분들(누가? 그리고 무엇을?)은,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결정적 요소들이다. 여기 언급된 두 성분들은 스토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했으며,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한편 ‘무엇’이라는 성분은 스토리의 움직임의 파악할 수 있게 하며,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는지를 보여준다. 여기서 필자는 마커 펜으로 각각의 등장인물들과 사용된 다양한 동사들, 그리고 그 행위들을 서로 다른 색깔로 배분하여 표시하였

다. 또 다른 두 개의 성분들(‘어떻게?’ 그리고 ‘왜?’)은 스토리나 시문이 구축되고 길썬되는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여기서도 다시 마커 펜으로 반복되는 낱말들(동의어와 반의어를 고려하여)과 어구들 그리고 주요 담론 지시어들을 색깔별로 다르게 표시하였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6:30-44를 보자. 첫 번째 성분(누가?)를 적용했을 때, 본 단락은 스토리상에 나타나는 세 등장인물-예수님, 제자들 그리고 군중들이 나타난다고 대답하게 된다. 그러나 어떻게 이 세 등장인물들이 서로 상호 작용하는가를 알기 원한다면, ‘무엇?’이라는 성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스토리상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행동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들과 명사들을 살펴보는 것이다. 필자가 관찰하기로는 동사들(먹다[만족하였다], 없다, 앉아서 쉬었다. 그리고 가르쳤다.)이 중요해 보인다. 여기서 등장인물들과 그들의 행동들을 함께 결합시켰을 때, 우리의 해석학적 과제, ‘누가 그 행동의 주체인가?’, 누가 그 행동의 수용체인가?, 왜 다른 주체가 아닌 바로 이 등장인물이 이런 저런 행동을 하였고, 다른 등장인물은 수용자로 기능하는가라는 일련의 물음의 중요한 요소들을 발견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 마가복음 6:30-44에서의 주인공은 제자들이며, 전체 행동은 기적 자체에 포커스가 있는 것은 아니라, 목사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제자들이 이해하도록 돕고 있다.

관찰하고 질문하는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는 로버트 알터가 숙고하였던 문학적 분석의 과제, 즉 “언어를 교묘하게 사용하려는 주의나 또 한편 사상, 인습, 음색, 소리, 이미지, 구문론, 이야기식 관점, 구성 단위 등의 잔재주를 다방면에서 끊임없이 판별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필자는 내 방법론을 가르칠 때, 관찰하고 질문하고 묻는 기술(art)을 학생들이 이해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돕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 7.3. 실재적 과제

대부분의 수사 비평가들이나 문학 분석가들처럼, 필자도 삽화(pericope)나 담론 단위로 본문의 범위를 정했다. 그리고 다시 관찰과 경험을 토대로 하여 어디에 견고한 틈이 있고, 또 어디에 부드러운 틈이 있는지를 찾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즉, 중심 단어의 배치가 중요하다는 말이다. 수미상관 구조(*inclusio*)와 동심원 구조(*concentric structure*)에 대한 지식은 히브리식 사고가 이러한 구조를 선호한다는 사실 때문에 중요하다. 따라서 본문 내에서 중심 주제가 어디서 전환되는지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단락의 구조를 인식하는 것은 문학적 그리고 수사적 분석에 있어서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여기서도 관찰은 분석 작업의 중요한 부분이다. 한 예로 출애굽기 3:1-15를 분석한 것을 함께 보자.

크게 두 단락으로 본문을 나눌 수 있다. 첫 단락(1-9절)에서의 이야기는 보는 행위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보다**라는 동사와 그와 같은 어원을 가진 동사들이 주어진 단락에서만 10회 반복되고 있다. 첫 번째 동작과 관련하여 보는 행위의 주체는 모세이다:

- 그가 주의 천사를 **보다**(2절)
- 보라** 타오르는 나무를(2절)
- 그는 가까이 가기를 원했고 광경을 **보았다**(3절)
- 그가 가서 **보았다**(4절)
- 그가 **보기를** 두려워하다(6절)

두 번째 그리고 결정적인 동작으로 하나님께서 보는 행동의 주체가 되신다.

- 하나님께서 **보았다** 모세가 광경으로 가까이 오는 것을 (4절)
- 하나님께서 **보았다** 억압으로 고통 받는 백성들을 (7절)
- 하나님은 **보았다** 백성들의 학대를(9절)

따라서 행동의 주체가 모세로부터 하나님께로 전환하는 것을 본다. 첫째, 모세가 보았고 어떤 새로운 것을 발견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았고, 발견했다.

바꿔 말하면, 모세의 인간적인 좁은 시각이 하나님의 신적 시각으로 변하는 것이다. 몹시 놀란 모세가 불꽃이 타는 떨기나무를 보았다. 그런데 그 불은 사라지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 주시려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그의 백성들의 불타는 억압이다. 그리고 확실한 메시지는 그러한 영속적인 고통은 그들을 파괴시키지 않을 것이며, 그들은 구출될 것이다.

10-15절은 보내는 행동으로 전환되며, 하나님이 유일한 주체가 되신다.

- 내가 너를 **보내어**(10절)
- 내가 너를 **보낸다**(12절)
-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13절)
-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불리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3절)
- 나 야웨는... 너를 그들에게 보낸다(15절).

하나님의 통찰력으로부터 능력을 부여받은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작



정하신 그 일을 하도록 보냄을 받았다: ‘나는 그들을 구출하려고 내려가서…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8절), ‘내가 너를 보낸다… 그러니 너는 내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낼 수 있다’(10절). 모세는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행할 것을 위임 받은 것이다.

그 때 모세는 깨닫는다: 나는 바로의 권력에 도전하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보증한다. 지금부터 너의 생명은 내가 무엇이냐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 이다’에 의해서 정의될 것이다. 겸손하고 유약한 모세의 ‘내가 누구길래?’라는 말은 최상의 결과로써 하나님의 장대한 ‘나는 … 이다’로 바뀌고 있다.

여기서 필자가 진행하려는 작업은 행동들의 용례를 관찰하고, 누가 등장인물인지, 어떻게 등장인물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살피며 또한 동시에 스토리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조사하였던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러한 구조를 보여주지 못하였고, 그들은 양식비평에서 온 윤곽을 따르고 있다. 이 본문은 소명기사로 사려되며 그 구조는 다음과 같다: 마주침(1-3절), 하나님의 서론(4-9절), 위임(10절), 모세의 거절(11절), 약속, 표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기 계시(12-15절).

분석 경험은 각각의 본문은 그 자체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며,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것을 말하도록 명령한다.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어렵고 혼동되는 어휘들은 가급적 피하고, 그것 자체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 그리고 정경적 형태를, 단순히 다른 도구들의 도움 없이 관찰하고 많은 질문들을 묻는 작업을 통하여 본문을 직접 다루는 것이다. 아래의 실례들에서 우리는 단어나 또는 표현의 올바른 번역이 어떻게 바른 주석과 선포에 있어서 근본적인 것인가를 살펴볼 곳이다.

#### 7.4. 어린아이가 됨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왕하 5장)

열왕기하 5장의 스토리는 시리아 군사령관 나아만이 병을 낫고 구원을 얻음이 어린아이가 됨을 통하여 발견하였다.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문들은 어린아이가 됨의 큰 가르침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여신다. 자, 본문의 스토리를 살펴보자.

본문의 기사는 세 부분으로 나뉜다: 나아만의 치유(1-14절), 나아만의 회심(15-19절), 게하시의 거짓과 욕심(20-27절). 다른 기사에서와 같이, 저자의 이야기 기술은 상당한 유머와 예리한 풍자를 보여주고 있다. 지위가 높은 그의 나라에서 유력자인 군대의 장관이 피부병으로 고생하고 있었다(1-2절).<sup>1)</sup> 거대한 왕 기구

와 관료주의가 그의 치유를 위하여 움직였고, 그 병의 정도가 상당히 넘어선 상태였다(이 병은 불가피하게 사회로부터의 격리는 당하지는 않아도 되는 한센병의 일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만과 모든 그의 백성들에게 이 문제는 상당히 중대한 문제였다. 사마리아의 예언자에게 예정했던 선물이 그것을 증명한다. 750파운드의 은과 150파운드의 금과 의복이 열 벌이었다(5절).

한센병과 그의 대단한 지위 때문에 이스라엘과 왕실 법정에서는 큰 소동이 벌어진다. 대조적으로 그 기사는 물론 작은 계집아이(הַיְתוּמָה הַקְּטָנָה, 2절)를 소개한다.<sup>2)</sup> 그녀는 왕을 수종드는 자가 아니라 나아만의 부인을 위하여 일하는 자였다. 그녀는 나아만이 가졌던 것처럼 존엄과 권위에 둘러싸여 화려하게 입성한 것이 아니라, 전쟁 포로로 끌려왔다. 그녀는 피정복국에 속해 있었기에 영원히 무명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그 어린 소녀는 나아만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였던 것이다. ‘만약 당신이 사마리아에 있는, 나의 주 선지자에게 요구하시면, 그가 당신의 한센병을 고치리이다’(3절). 어린 소녀로써, 그녀는 나아만이 얻어야 할 완벽한 모범이 되었다(הַיְתוּמָה הַקְּטָנָה: 한 어린아이, 14절). 다시 그녀와 함께, 다른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역 속으로 들어와 나아만의 치유를 위한 도구로써 사용되는 주 언급으로 등장한다. 이러한 등장인물들의 태도는 스토리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들(시리아 왕, 이스라엘의 왕, 게하시)과는 분명하게 대조되고 있다. 나아만이 여기 언급된 등장인물들과 각각 만남을 갖게 되는데, 그럼으로 그는 자신의 치유와 구원의 길로부터 이탈하여 지연된다. 오직 그 아이가 스토리 속으로 들어왔을 때, 마침내 나아만은 완전한 치유와 구원의 대로를 발견하게 된다.

본문의 스토리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전개되는데, 주인공 나아만이 장관들과 권세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어른들로부터(1-2절), 입을 삐죽거리는 어린이에게로(11-12절), 다시 총체적으로 치유된 완전한 아이로(14절에 ‘나아르 콧탄’이라는 말은 작은 아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다시 어린아이의 천진난만함과 솔직함으로 그는 말하기를: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두 마리에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제가 림몬의 성전에서 허리를 굽힐 때에,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17-29절, BLS).

그 과정은 참으로 교육적이다. 권세와 영광을 가진 사람이 국가적 경보를 일의 키며 이스라엘로 와서(7-8절), 그의 말과 전차를 몰아 선지자의 집 문 앞까지 도착한다(9절). 여기서 그의 태도는 그가 그 자신의 중요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나는 선지자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1) 만일 나아만이 군대 장관이었다면, 그는 자신의 고향에 있는 포로된 소녀의 책임을 맡은 바로 그 사람이다. 그에게 있어 천사와 같은 구원자인 그 소녀가 바로 전리품의 일부였다는 사실이다.

2) 이사야 11:6과 관련하여, 메시아 시대에 어린아이의 지도력을 말하는 이사야 11:6에 열왕기하 5장에서 두 번 나타나는 작은 아이라는 동일한 어휘가 쓰이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은 중요하다.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피부병을 고쳐 줄 것이라 확신했다(11절, BLS). 그러나 선지자는 그를 크게 환영하여 맞이하기 위하여 나가지 않고, 그는 그의 종을 보내어 그를 통하여 나아만에게 요단 강에서 일곱 번 목욕을 하라고 명한다(10절). 이것은 어린아이가 되기 위하여 배우는 학습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말한다. 정복자가 종이 되었으며 상관이 부하가 된 것이다.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씻으라**(10절).

그러나 나아만이 그렇게 쉽게 굴복한 것은 아니다. 그의 국가주의적 자아가 그에게서 이스라엘이 시리아보다 어떤 면에서 더 낫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막았던 것이다: **아니야, 나는 선지자의 지시에 순종하지 않을거야. 그가 치유와 새로운 생명을 얻을 기회를 잃어버릴 바로 그 순간 다시금 바닥으로부터 종이 나와 그의 감각이 되살아나도록 한다**(13절). 그리고 나서 나아만이 순종한 것이다. 까다로운 입을 깨무는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나아만은 결국 **완벽한 어린아이**가 된 것이다. 그가 선지자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의 피부와 몸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었던 것이다.

한편, 어린아이가 되었음을 뜻하는 나아만의 회심은 본 기사에서 두번 나타나 **돌아오다**(수브)라는 말로 표시된다.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새살로 돌아와, 깨끗하게 나왔다**(14절).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되돌아와...**(15절). 그 순간 나아만은 더 이상 명령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 된 것이다(15, 17, 18절). 나아만은 작은 어린아이가 되어 그렇게 행동하였다. 이스라엘의 강을 거부하고 난 후에, 그는 이스라엘의 흠을 요구하였고(17절),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었다(17절). 그러나 그 아이는 이스라엘 소녀나 엘리사처럼 믿음의 새로운 게임에 참여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래 주머니에 흠을 채우라고 명령하지 않았다. 나아만은 어린아이의 논리에 부합하는 은총을 구하였다. **“한 가지만은 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제가 림몬의 성전에서 허리를 굽힐 때에 저를 용서해 주소서. 제가 모시는 왕께서 림몬의 성전에 예배 드리려고 그 곳으로 들어갈 때에, 그가 내 손을 의지할 때, 저도 허리를 굽히고 림몬의 성전에 들어가야 합니다**(18절).

여기서 다시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묘한 논리를 보게 된다. 이스라엘의 적국의 한 사람인 이방인이, 그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부터 치유와 생명을 얻었고, 아이가 되는 엄청난 진리를 배우게 되었던 것이다.

기사 전체는 하나의 축제와 유쾌한 공기를 숨쉬고 있는 하나의 실재적 경험이다. 이 세상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어린아이들이 리더들이며 안내자들이다. 그들이 이 같은 하나님의 프로젝트의 확실한 선교사들이다. 이러한 게임을

통하여, 치유와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일어났고, 불량배와 영웅적 자질이 없는 주인공들이 그 정체를 드러내게 된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종의 선지자를 돕는 게하시가 부와 권력에 목말라하며,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참여하기를 내키지 않아했던 악인이었음을 선포함으로 끝나는 이 스토리를 통하여 입증되고 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게하시가 나아만이 앓았던 그 피부병을 물려받게 되었다(25-27절).

## 8. 도움이 되는 번역자

이러한 주석적 방법론을 진행하면서, 필자는 담론 지시어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비록 필자도 역동적 동등성의 원리의 가치를 고려하면서도, 번역자들이 본문에 나타난 중심 단어들을 열심히 연구하고, 단어와 구와 주제들이 반복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며, 독자/청자들이 담론 단위의 구조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역동적 동등성이 담론의 통일성을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번역자는 수사적 분석에 익숙해 있어야 하며, 본문의 저자가 사용하는 수사적 장치들(rhetorical devices)에 정통해 있어야 한다.

번역자들은 다양한 성경 역본들의 특성이 자신들에게 유용하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으며, 그들의 주석적 작업과 번역 과제의 여러 단계에서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수사적 분석을 잘 훈련했다면, 어떤 역본이 이 방법론에 특별히 맞는 최고의 버전인지를 즉시 알 수 있을 것이다.

성경 역본들이 **수사적** 분석과 주석적 방법론에 관하여 성경 번역들에게 충분한 밑그림을 그려주지 않기 때문에, 번역자들이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를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 필자는 그들을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학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 수준에서 성경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된 사람들로 **보는** 것이다. 스페인어 내에서 우리의 번역자 입문서들은 이 문제에 주의해야 할 것이며, 특별한 단락 또는 본문에 있어서 문헌적인 그리고 번역적인 설명을 제공해 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인용구(pericope)에 나타나는 주요 담론 지시어들과 다른 기타 수사적 장치들을 분명하게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번역, 담화 단위, 문체 변화, 담화 구조, 수사 비평

<Abstract>

## **Is It Our Translation Fit for Teaching and Preaching?**

Dr. Edesio Sánchez

(United Bible Societies America Area Translation Consultant)

When dealing with the so-called indigenous languages (“American Indian languages” in our part of the world), the issue of presenting a translation suitable for exegetical work and, thus, for teaching and preaching, becomes a real problem.

Normally, a literal translation from the biblical languages could be a way to solve the problem. But, nowadays, almost all Bible translation, done by UBS teams follow the principle of dynamic or functional equivalence translations. This paper has the aim of showing that when a translation pays careful attention to literary and stylistic features, as well as the discourse unit, a meaning base translation can become base text for exegesis and proclamation.

Through different examples taken especially from the OT, this paper shows how a dynamic translation can solve some of the problems face if it includes literary and stylistic analysis.

The paper also presents an approach to exegesis that has been a great help with students who have little academic training, and will not be able to use Hebrew and Greek texts nor the highly specialized exegetical tools used in Universities and Theological Seminaries. By doing this, the paper also exposes some of the deficiencies of the traditional Historical Critical Method and shows how helpful it is to learn and follow the New Literary analysis, also known as Rhetorical Criticism.

Key to this method is the use of basic tools the Biblical text copied on a sheet of paper, pencils or markers in different colors and two main expertise: observation and the ability of asking sound questions. As an example of this method, Exodus 3:1-15 and 2 Kings 5 are used to show how convenient it becomes for the task of preaching and teaching the Bible.